

보 도 자 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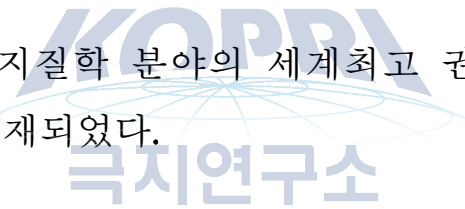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홍보팀
(팀장 이지영, 담당 강민구)
Tel : 032-770-8630, 8631
Fax : 032-770-8709
- ◆ 2017. 5. 29.(월) 배포
- ◆ 총 5쪽 (본문 2쪽, 첨부 3쪽)

사라진 남극 빙하의 흔적을 찾다

- 극지연구소 (소장 윤호일)와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공동 연구팀은 남극 로스해 (Ross Sea)에서 빙하가 사라진 경로를 새롭게 찾아냈다고 밝혔다.
- 현재 바다인 로스해 지역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으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빙하기가 끝나고 해빙기 (Deglaciation)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바닷물에 잠기게 되었다.
- 연구팀은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서 탐사한 해저 지형자료를 분석해, 로스해 중앙 부분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빙하가 현재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후퇴하다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. (그림 2)
- 해저지형에는 과거 빙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, 이번 연구결과는 로스해 지역이 동남극과 서남극 대륙빙하 (빙상)의 영향을 골고루 받았음을 보여준다.

- 이는 빙하기 동안 로스해가 서남극 대륙빙하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사라진 빙하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기존학설을 뒤집는 해석으로 이 지역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.
- 빙하가 바다에 잠기면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, 빙하 움직임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의의가 있다.
- 현재 세종과학기지에서 근무 중인 이재일 박사는 “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난화에 따른 남극 빙하의 후퇴와 해수면 변동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연구를 확대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- 이번 연구결과는 지질학 분야의 세계최고 권위 학술지 ‘Geology’ 2017년 5월호에 게재되었다.



- 그림1. 남극 로스해 (Ross Sea) 위치도
- 그림2. 새롭게 확인한 남극 로스해 빙하후퇴 모델
- 그림3. 남극 로스해 빙하후퇴 기존 모델

극지의 한국, 미래의 도전

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이지영 홍보팀장 (☎ 032-770-8630 / 010-3602-9305) 또는 강민구 행정원 (☎ 032-770-8631 / 010-5444-630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그림1

남극 로스해 (Ross Sea) 위치도



그림2

새롭게 확인된 남극 로스해 빙하후퇴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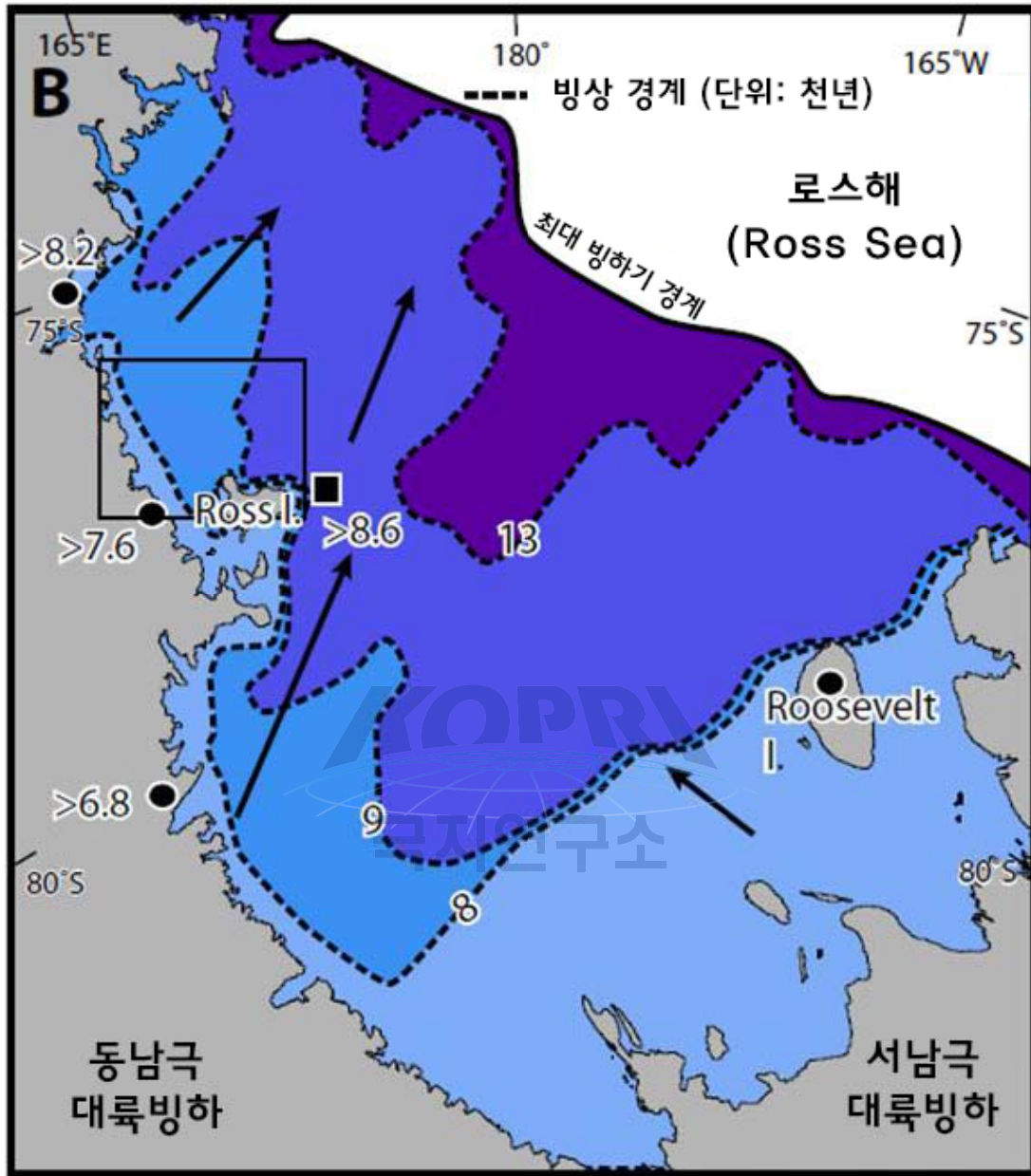


그림3

남극 로스해 빙하후퇴 기존 학설

